

내년 예산 5.2% 증가

익산시, 적극적·확장적 재정... 경제활력제고·미래산업 도약

익산시가 내년도 예산안 1조 5,689억 원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2% 78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1조4,313억원, 특별회계 1,37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성장 도약에 중점을 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을 편성 운영 할 방침이다. 특히 세입 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지원사업에 민간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 익산사랑상품권 375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8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이차보전 20억, 소상공인 특별보조금 5억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일자리 및 청년지원 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33억,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19억,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45억원, 디아로움 일자리사업 23억, 익산형 뉴딜일자리 6억, 익산형 근로장년수당 30억원, 민간협력 위드코일 청년창업지원 8억 원 등을 지원한다. 관광·역사 및 체육분야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101억원,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67억원, 반다비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 건립 32억원,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 18억원 등을 지원한다. 모두가 행복한 명품 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지원 388억원, 아동수당 지급 143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22억원, 다둥이 사랑지원금 8억원, 국가예방접종 41억원 등을 지원한다. 미래를 꿈꾸는 농업·축산 분야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3억원, 벼 병해충 공동·사전방제 지원사업 15억원,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9억, 친환경 비료 및 생산장려금 지원 14억원, 공공 승마장 시설 및 조형물 등 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친환경농업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시민들에게 시장 훈격의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힘 다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내”

익산시,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여 유공시민 표창

익산시는 22일 황등면 오가늠리농조합법인에서 개최된 익산 친환경연합회 추수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정현을 익산시장이 친환경농업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시민들에게 시장 훈격의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의 김진용, 남궁진업씨와 익산학교급식영농조합 양기호씨 등 3명이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유기농법을 유지하며 친환경 품목다양화와 확대에 기여한 농업인들이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등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앞장서 주신 농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수상자는 농가대표 3명이지만 모든 친환경농가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업발전과 친환경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상범 연합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시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힘을 다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앞장서 주신 농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수상자는 농가대표 3명이지만 모든 친환경농가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농업발전과 친환경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상범 연합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시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온힘을 다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황철호 부시장 국회방문 예결위원 면담 국비지원 요청

내년도 국가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위원회 소위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22일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국회를 찾아 예결위 위원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군산시 예산 책기에 분주하다. 황 부시장은 먼저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예결소위)위원을 찾아 군산시 국가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과 예결위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맹성규(예결위 간사) 의원실을 방문해 시 중점확보사업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원 호남동행 의원인 송석준(국토위)위원을 찾아 시 현안사업인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강사업, 새만

금신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의겸 의원, 정운천 의원, 이원택 의원을 차례로 만나 소관 위원회별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항 항로 준설사업(130억) ▲선유도 망주봉(명승 제113호) 일원 토지매입(61.6억) ▲전북개발원 군산분원 건립(78억) ▲수중고교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용역비(3억) ▲군산~어청도~연도 항로 분리 운영 예산(5억) ▲4토지

~리조트(자호빌 도로개설공사(28억) ▲동백대교 조명설비 보완(20억) 등 시민체감형 사업들로 국토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기재위 등 전방위적 건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어 앞서 황 부시장은 지난 9월에도 국회를 찾아 군산시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 의원들과 예결위 의원 등을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다. 황 부시장은 “그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및 기재부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22년 국가예산이 의결되는 12월 초까지 전북 도와 정치권 공조를 통해 주요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민 시정 운영만족도 ‘역대 최고’

정현을 익산시장이 이끌고 있는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로 조사됐다. 익산시가 지난달 시민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81.1%가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시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익산시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익산시 거주 19세 이상 남녀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

다. 조사표본은 지역별 인구에 비례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2%이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 11건에 대해 진행된 이번 시민 정책만족도 조사는 모든 사업에서 긍정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익산 지역화폐 디아로움 발행 정책에 대해서는 93.2%의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보이며 민생경제 활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 등 지역발전 시책(89.5%)과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녹색도시 시책(87.0%),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먹거리 선순환 시책(86.1%)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익산시 정책들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공무원 친절도(74.7%)와 공무원 적극행정 실천(69.0%)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평가를 보여, 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이득훈 기자

정현을 시장, MZ세대와 청년희망도시 정책담론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역청년 및 유관기관과 함께 MZ세대를 사로잡을 청년 정책에 대한 담론을 펼쳤다. 익산시는 22일 익산청년센터 청춘에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한 청년 정책에 대한 성과를 알리고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현을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정책 위원회는 청년들과 익산시 의회,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장 포함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라는 비전으로 익산시가 그간 추진한 4대 핵심 전략인 일자리, 잘자리, 놀자리, 설자리 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은 내년 사업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제언들을 쏟아냈다. 시에 따르면 22년도 예산 편성중인 청년 지원 사업은 모두 22건에 달하는

데, 이날 회의에서는 저임금으로 지역을 떠나려는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정책에 집중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청년위원들은 지역 청년들이 처한 특색이 없는 현실에 대해 익산시를 비롯해 각 유관기관에서 세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하고 위원들은 청년들이 기성세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개선을 통해 MZ세대 청년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 기관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2019년 출범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를 수행한 바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의료비 등 혜택 부여

군산시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45명(개인40명, 법인5개)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매년 일정액(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고용 종합지원센터 '일자리 한마당' 개최

군산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마지막 일자리 지원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4일 군산 리버파크호텔 2층에서 '2021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일자리 한마당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채용행사다. 채용홍보와 구직자발굴,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윈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채용규모는 해원엔에스씨(주), 태경에스비씨(주), (유)유로테크, 유니타버 등 소재분야업체들을 포함한 총 10개사가 참여해, 약 8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면접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면접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스트레스상담 및 타로진로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면접/이력서컨설팅 및 3D펜을 활용한 4차산업 메이커 직무 체험 부스를 동시 운영해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